

무등산자락 아파트 건립 현장실사 후 가부 결정

광주시도시계획위, '중 상향' 소태동·운암동 2곳 시민단체·주민 반대 잇따라...동림동 조건부 의결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저층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계획과 관련, 현장실사를 거쳐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단독주택지역이나 무등산 자락에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에 대한 시민단체,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 도시계획위의 추후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30일 열린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암동과 소태동의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해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동림동 아파트 건설계획은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3건은 모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중' (種)을 높이는 안건이다. 이렇게 되면 4층 이하 저층 주거지역인 이들 지역의 용적률이 150%에서 220%까지 상향돼 고층 아파트

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동구 소태동(2만 5460㎡)에 13~16층 높이 288세대와 북구 운암동(4만3601㎡)에 24~29층 높이 508세대, 북구 동림동(9674㎡)에 15층 높이 2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 등이다. 동구 소태동과 북구 운암동 등 2건은 주택조합이, 나머지 북구 동림동 1건은 건설업체가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날 도시계획위에는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소태동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참석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시 도시계획위는 운암동, 소태

동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거쳐 중 상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을 바꿔 고층 아파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그 필요성이 있는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자연이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림동 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비오름 보존 방안 수립, 인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청년 드림 지원사업' 15일까지 신청하세요

315개 사업장서 일경험

광주시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지원사업'에 참여한 '제5기 드림청년' 신청을 접수한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은 일과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된 후 상·하반기로 운영되면서 총 4개 기수 10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범부처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실업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일자리를 창출 하도록 2021년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시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5기 운영

을 위해서 1월 한 달 동안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할 드림터(참여사업장)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공익활동, 기업, 사회복지, 사회경제, 청년창업기업 등 6개 유형의 사업장을 공개 모집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315개 사업장을 확정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광주청년드림' 공식사이트(www.gj3dream.modoo.a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광주청년드림(http://pf.kakao.com)에서는 1대 1 상담도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리는 드림 현장상담의 장에 참석해 사업장 소개, 현장 상담을 실시하고, 최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설 연휴 방역 공동 대응

광주·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원이 설 연휴기간 방역 공동대응에 나선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2일부터 6일까지 방역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자에게 연락 후의 심검체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검사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 소속 연구사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 파견, 협업 검사 등 비상근무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권 4개 보건환경연구원 이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뤄졌다.

홍역은 홍역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으로 호흡기분비물 등 기침을 매개로 전파된다.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전염력이 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환자는 격리 치료해야 하고, 접촉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다.

신미영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조사과장은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등 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을 꼭 방문해야 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접종을 해야 한다"며 "마스크·손수건·옷소매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등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 두 번째)와 박명재 국회의원(가운데)이 지난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정격차 완화 및 수도권 공약총량제 준수강화 건의문을 발표 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재정격차 완화 건의

예타 면제사업 후속절차 이행도 촉구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협의기구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명재 의원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후속절차 신속 이행, 수도권 규제총량제 준수,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 시 재원 동시 이양,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 등을

촉구했다.

공동건의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정부의 수도권 공약 부지 특별물량 공급은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집중을 야기해 지역 불균형 및 지방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난해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재원이 편중되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저출산·고

령화, 수도권 집중화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며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이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난 2006년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출범했다.

김 지사는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과 함께 지난해 9월 제5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서남권 관광 활성화 논의

제1차 관광전략회의

전남도는 지난 3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 주재로 '제1차 전남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남관광전략회의는 지역 차원의 관광전략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도와 출연기관, 시·군 합동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방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9개 실국장과 서남권 9개 시·군 부단체장, 관광 관련 학계 전문가, 업계 대표자, 관광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관광기획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관광시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남권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책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신안 천사대교(3월 말)와 목포 해상케이블카(4월), 영광-무안 철산대교(연말) 개통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간인 압해-화원 연도-연륙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관광 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서남권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목포 고하도 해상터미파크·신안 자은 해양관광단지 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 명소 육성 ▲공동 홍보·마케팅,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광상품 운영으로 서남권관광협의회 운영 활성화 ▲목포 평화관광 해양레포츠센터·무안 생태갯벌센터 전시시설 등 서남권 해양관광 기반시설 구축 ▲신안-목포-해남 연륙-연도교 조기 착공,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등 관광 SOC 확충 ▲활주로 연장·대중교통 확대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등이 제시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5만2500여명 이용

광주시청 문화광장에 마련한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5만25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개장한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은 48일 간 운영, 31일 폐장됐다. 이 기간 스케이트장과 썰매장 이용자는 하루 평균 1093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이용객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의 놀이공간으

로는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번 시즌에도 장애인의 스케이트장 이용 어려움을 감안해 스케이트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스케이트 초보자를 대상으로 1일 2회 무료 강습을 실시해 호평을 얻었다. 또 주말·공휴일에는 재능기부를 통한 DJ박스를 운영하며 이용객의 사연 소개와 더불어 즐겁고 신나는 스케이트장 분위기를 조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뉴스 facebook 페이스북에서 보세요

임야 단독섬

- 바로 삽니다!
- 전남/북지역/지분 환영
- 1억원 이하
- 당일 매입 가능

문의. 010-6834-7400

다스코 주식회사 세라코 주식회사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신청하지 않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부지를 임대하고 있으나 신청하지 않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삽입이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당대리가 임하신 태양광발전소 사업장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인·출력 유효범위
 - 태양광 부지조사 및 영업
 - 태양광 계약서 작성

ONE-STOP TOTAL SOLUTION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 부 문 | 담당업무 | 자격요건 | 근무지 | |
|-------|-------------|------|--------------------------|-----|
| 다 스 코 | 전략기획 | 전략기획 | · 사업대상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 화 순 |
| | 신재생에너지 | 영업 | · 태양광영업 경력자 | |
| 세 라 코 | 수질관리 | 설계영업 | · 설계영업 경력자 | 나 주 |
| | 세라믹 (장비·재료) | 영업 | · 설계영업 경력자 | |
| | | R&D | · 영업 관행과 전공자 우대 | |

· 접수처: 영업 061-203-203, 인사@daesco.kr, 문의: ~ 세라코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주)씨엘테크복합방수

광주, 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주)씨엘테크복합방수